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6일 목요일 음 1월 13일 (5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 낮 최고 기온은 5~8℃로 예상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에는 결빙 구간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7:27 / 해짐 18:09	달뜸 14:52 / 달짐 04:37
물때	만조 09:10 / 20:42	간조 02:16 / 15:34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4/7℃
모레	구름 많음	6/9℃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매우높음

월드뉴스

영국,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퇴출

하이브리드 차량도 금지

영국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차량.

2035년부터 영국에서 휘발유 및 경유차 구입이 불가능해진다. 당초 영국 정부는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차량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4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개최 준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판매를 금지하되, 가능하면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영국은 이같은 규제를 204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최초로 2050년 순 탄소배출 제로(0)를 선언했다.

영국 정부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할 경우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존슨 총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하나의 국가이자 사회, 지구, 종으로서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불과 15년 안에 휘발유 및 경유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변화라며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오 수 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주문화의 가치 인식 제고

며칠 전 옹기와 굴을 보기위해 대정을 방문했다. 필자가 20대 당시 도요지를 조사한답시고 대정과 고산일대를 부지런히 발품 팔았던 경험이 있기에 도요지 흔적을 찾아 물어보면서 다녔던 여러 추억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 당시에 비해 지금은 옹기를 주제로 한 옹기전수회관, 옹기박물관, 옹기마을이 눈에 보이고, 제주옹기장이란 이름으로 무형문화재들이 터를 잡고 있지만, 급속히 도시화된 마을 경관에서 과거에 느꼈던 옹기에 대한 아련함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옹기의 역할은 생활용기에서 더욱 소외되면서 플라스틱, 스텐, 유리, 도자에 밀려 이젠 집에서도 어쩌다 볼 수 있는 귀한 골동품이 되었다. 옹기를 도내 곳곳 팔러 다니며 한 밑천을 삼았던 수익수단의 기능을 상실한 지도 50여년이 흘러갔다. 또한 마을의 전통적 특성을 살려 랜드마크로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마음만큼 아주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옹기에 대한 기록은 고려 후기 문신이었던 이제현의 시문집인 '익재난고'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제현은 고려시대 탐라에서 불러지던 속요(俗謠)를 칠언절구의 해시(解詩)로 기록했는데, 제주도민들은 생산품이 별로 없어 전라도지방에서 장수들이 옹기와 쌀을 팔러오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시대 중종 15년(1520)에 제주에 유배 왔던 충암 김정(金淨)이 남긴 '주풍토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김정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풍토와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제주에는 사기, 도기, 유철이 나지 않고, 나무통으로 물을 길러 다니고 있었다고 했다.

물론 제주 곳곳에서 탐라국시대 이전 유적부터 옹기의 전신인 생활 토기들이 지역적 특성과 시기를 드러내며 발굴되고 있고, 그 토기들의 용도는 생활용기, 제사용기 등 다양한 곳에서 그 쓰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기록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옹기인 허벅, 물항아리, 고소리, 단지 등 대부분은 500여년의 역사를 지녔다. 물이 귀한 제주에서 중세와 근·현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이자 문화의 지표가 됐다. 또한 철저한 분업형 제작과정은 하나의 옹기를 완성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인 수눌음 정신을 반영해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해왔다.

우리가 경험해 온 옹기문화는 최근 점점 해이해져 가는 공동체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문정신문화인 동시에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우리 제주 역시 상징적 문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활용상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문화는 전통문화의 가치가 내재된 채 인문·자연적 환경의 변화에 순응해왔다. 그럼에도 세계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문화의 맹아로 삼아 그 지역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문화정책으로 발 빠르게 포장하고 있다.

문화의 특수성이란 차별성 때문에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이 되는 시대라고 하고 있고, 그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연금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다.

열린마당

제3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 시작

정 경 미
제주시 삼양동 맞춤형복지팀장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2012년 10월 17일)에 의해 복지위원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사회보장급 여법 시행(2015년 7월 1일)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구성하게 되었다.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간과 행정이 서로 밀접한 협력관계에 놓이게 됐다.

지난 1월 1일 제주시 536명으로 구성된 제3기 읍면동지역사회복장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해 활동범위를 다양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희망 나눔 캠페인 계좌 모집, 착한가게, 집수리,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관 협력 없이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역시 협력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이야 말로 복지의 꽃이며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복지만이 살길이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대상자들과 마주하게 된다. 당장 입원조치가 필요한 가구, 집수리, 의료비, 도시락배달, 생필품 전달, 긴급생계비 지원 등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자원과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해 대상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서비스와 자원은 적절한가, 수혜자들은 만족하는가 등 서비스의 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제3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 보듬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서귀포를 위해

강 명 언
서귀포문화원장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서귀포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예술로 풍성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우리 문화원이 2020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새해 설계를 다음과 같이 했다.

첫째, 서귀포시가 동홍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문화체육복합센터 내 문화원사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에 힘쓰겠다.

둘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학교와 문화대학을 더욱 활성화시켜 문화로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보존·보전을 위해, 향토자료 연구 및 발간사업을 진행하며, 아울러 그간 발간된 자료를 e-book으로 제작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향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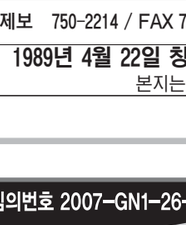
넷째, 마을간 문화격차의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적인 조화에 힘쓰기 위해 서귀포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협력을 통해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 열린문화원을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인과 다각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문화원이 플랫폼 역할을 열심히 하며 소통과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2020년, 서귀포문화원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읍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 구 치 과 의 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소방서 시청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